

# 중고령 실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나혜숙\*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 Phenomenological Study for re-employment process for middle or old-age people the Unemployed

Hye Sook Na\*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ojeong Colleg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concrete and practical experience on a series of debates to reveal factors that could be exposed when middle or old-aged people are in the process of re-employment process when they were unemployed by exploring the phenomenon of experience on the courses for the unemployed focusing on middle or old-aged people f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Depth consult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structure of this phenomenon was revealed and described by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y technical as a procedure for analyzing participants' statements by concentrating on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the unemployed re-employment process structure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nature of re-employment experience on the basis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information stated through this study showed respectively such as <Realistic limits seaworthiness>, <re-employment efforts will>, <Desperate economic poverty>, <To find my identity in the process of re-employment>, <In anticipation of the second half of my youth>, and "Reemployment Success Factors". It is a significant meaning that middle and old-aged peopl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y experienced Dynamic pursuit of hopes and dreams and go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society Toward a new life By strengthening employ ability skills by undertaking vocational training, obtaining licenses, and regaining confidence and employment determination, and a lot of desire using the card for learning tomorrow, government support system.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The Unemployed, Reemployment, Middle and Old-age peopl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인 기

대수명은 80.3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기대수명과 9년의 격차가 난다. 수명은 크게 늘지만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노후 대책은 미흡하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기대수명 80세 시대를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통계청, 생명표, 2009).

† Corresponding Author : Hye Sook Na,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ojeong College

1049-56 Hwahap-ro, Eunhean-myeon, Yangju-si, Gyeonggido

M.P : 010-8980-0714, E-mail : nhs1919@seojeong.ac.kr

Received April 20, 2014 Revision Received June 15, 2014 Accepted June 20, 2014.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수명이 증가한 50세 이상의 중고령 실직자들이 공식적인 취업이 없이 많은 세월을 노후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부담은 점점 가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802만 2천명이라고 한다. 20년 전인 1991년 4월 403만 1천명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1년 4월 510만 3천명과 비교해도 10년 새 300만 명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력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11년 4월 고용동향).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고 유휴인력으로 변화를 맞게 되며, 취업률은 청년층이 38.9%인데 비하여 40대는 27.3%, 50대는 20.9%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중고령 실업자의 양산은 소득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내수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며, 중고령자는 취업자의 48.2%, 경제활동인구의 47.5%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이어서 구조조정이 실현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통계청, 2011년 4월 고용동향).

노후소득보장이 점점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식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준비가 미흡하여 한국에서 고령화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여 고령자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본 논문은 취업에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재취업과정을 현상학적 연구로서 그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고령자 취업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며 전 구직과정에 대한 실직자의 총체적 이해와 경험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해봄으로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의미와 필요성 및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교육이수 후 노동시장 진입으로 중고령자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심층면접으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각기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개인 인적자본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의 대안과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층상담 및 집단상담프

로그램과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실직자의 재취업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실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중고령자들의 재취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고령자들의 구직활동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그들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실직의 개념

실직(失職)이라 함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직업 또는 관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승, 1994)

일이라 함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일이란 휴식과 놀이 또는 '여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 2.2 중고령자 재취업 개념

중고령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마련과 더불어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중고령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취업이 이들 중고령자 연령층의 소득창출 능력을 증대하여 경제적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는 국가 생산성 증대와 고용 안정성 확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령자의 재취업 문제에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은 고령화 시대의 대비를 위한 거시적인 생산적 노인복지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미래가 지속될때 만이 삶의 만족도와 생활안정을 통한 아름다운 노후의 기대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또는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함으로서 건강이 유지된다면 중고령자 재취업이 최선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 2.3 재취업 관련 이론

직업탐색이론은 실업자의 재취업과 실업기간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직업탐색이론은(job search theory)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즉 정보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정보를 얻는 행위는 곧 비용이 드는 생산과정이라고 전제한다. 직업탐색 이론의 초점이 의중임금과 잠재적인 시장임금이 만나

는 시점이 얼마나 빠른 수준에서 결정되는가에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완전 경쟁적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적 차이에 주목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인적자본 투자행위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이루어내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재취업 시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Becker, 1965; Mincer, 1974). 인적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으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OJT), 건강, 구직, 정보, 이직 등이 포함된다(박덕제·이원덕, 1998). 사회연결망이론 이라함은 취업자의 직장 선택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직과 취업이 여러 사회구조 및 사회적 맥락, 특히 다양한 지역적 연고, 학연,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4 재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재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의 인적자본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 등 제도적 요인들이 취업의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 어수봉(1994)은 교육 년 수가 길수록 실업기간을 단축하여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반면 라운정(1993)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진욱(1998)도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학문적인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의 직업정보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 신현구(2008)는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취업 상태에 있을 비율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역시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1세 늘어날 때 약 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미경(2009)은 공공성이 담보된 구직서비스와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중고령자들은 파견, 특수고용, 용역근로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있으므로 사설 직업소개소나 인력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춘근(1999)은 IMF시대 실직자와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재취업의 어려움, 장애불안

과 압박감, 사회구조와 풍토 등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법으로 공부와 자기개발, 구직활동, 정보획득, 기분전환 노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중고령자나 장애인 역시 세계화, 기술의 발달, 등 지식근로자가 최대 가치가 되는 시대로의 변화로 경쟁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히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Giorgi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직자의 재취업과정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심리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드러내어, 이들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실직자들이 경험한 재취업과정과 인간사회의 현상을 보다 총체적으로 조명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인간과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주요 전통 중 하나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를 따라 연구하였으며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심층면담을 주로 활용하였다.

### 3.2 연구과정

본 연구의 수행은 중고령자 재취업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은 중고령자 재취업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 관련법, 사회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활용하였고,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2010~2012년 서울00고용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근로자와 현재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그리고 본 연구자의 심층상담 대상자였던 중고령자 등 10명(여성 7명, 남성 3명)을 1차 사전예비조사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직접면담을 통하여 2차 선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취업경험과 과거의 취업계기, 구직과정에 이르는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에 재취업한 경우로 연구참여자 선정을 한정하였다. 질적연구에서 활용하는 많은 자료생성방법 중에 이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실직경험자들의 일인칭 서술문헌 자료 수집을 채택하였다. 면담을 주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연구주제인 실직자 재취업과정으로 실직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재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재취업훈련을 받았던 실직자로서 구직활동과정에서 구직상

답을 받았으며 심층상담의 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연구자가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과정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것은 '듣기'를 통한 '보기'라고 말할 수 있다.

### 3.2.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및 특성

본 연구자의 목적은 실직자 재취업과정의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는데 있으므로 실직자 재취업과정의 의미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표집하고자 했다. 따라서 많은 유의적 표집 방법 중에서도 현상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사례를 선정하는 집중 표집을 활용하였다(Marshall & Rossman, 1999; Patton, 2002). 집중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1년 이상 실직자 경험을 해 온 사례다.

둘째, 취업의 경험이 있는 사례다.

셋째, 중고령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사례다.

넷째, 실직 현상에 대한 경험을 기꺼이 나누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고와 정서를 언어로 전환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3.2.2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녹음자료 듣기, 녹취록 읽기, 문헌자료 읽기는 각기 다른 의미의 굴곡과 색조를 전달해 주었다.

1차 연구 참여대상자의 적절성에 맞은 예비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취업 성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in-depth-interview)을 통한 직접면담으로 취업경험에 관한 비구조화된 면접지침안을 작성하여 질문하였고 개방적 진술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였다.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참여대상자를 여자 7명과 남자 3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직의 경험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40~60세 중고령자 10명을 인터뷰 하였다. 취업경험이 다양하지 못한 일반적인 대상자이거나 직종이 중복된 연구참여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1명을 제외시키고 다양한 직종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중고령자 9명을 최종 확정 지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은 경험하는 주체에게 드러난 그대로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Giorgi, 2004). 본 연구는 '중고령실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서 재취업의 경험을 겪은 대로

탐구하는 단계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기술을 녹취하고 녹취록을 읽고, 일인칭 서술 자료를 읽음으로써 이루어졌다.

1단계로, '전체의 인식 단계'를 걸쳐 녹취를 하고, 연구참여자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녹취록을 통독하고 정독하면서 일상적인 언어나 애매한 부분은 다시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2단계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로 연구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하면서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를 선별해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단계로,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로 지오르기(Giorgi)가 제시했던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언어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사회복지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연구이므로 사회복지학을 토대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은 꼭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4단계로, '변형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를 전환된 의미단위를 기초로하여 취업경험을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는 단계였다.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긍정적, 부정적 속성들, 훈련의 경험들, 인적자본 요인들과 노동시장 요인들로 구성요소별로 관계와 공통적 속성들을 재배치하면서 틀을 짜가는 과정이었다.

### 3.2.3 연구자로서의 준비

연구자의 준비로서 본 연구자는 재취업 과정 경험에 대한 논문을 쓰는 측면에서 연구자가 직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oo센터 현장에서 오랜 근무경력과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교육적 준비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고, 질적연구 학회, 한국교육인류학회에서 개최하는 워크숍과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서 월례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를 상대로 비구조화된 면접지침안을 작성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반복 질문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접지침안은 취업경험과 의미를 묻는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취업경험에 대하여 자주 반복했던 질문으로서 질문의 유형을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로서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문제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 이해, 추측, 가정 그리고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체들 때문에 우리가 현상학적 물음의 의의를 파악하게 되기도 전에 현상의 본성을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후설은

그 현상에 대한 지식을 그 현상 밖에 어떻게 두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생활세계 속에서 만났던 중고령자의 재취업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본 연구자와의 관계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을 하나의 현상으로 직면하고 직관하고자 노력하였다.

### 3.2.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형태가 어떠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과학적 방법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타당성, 신뢰성, 일반화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홍현미라 등, 2008).

신빙성(credibility)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경험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중고령자의 연령대로 볼 수 있는 40~60세를 대상으로 퇴직과 실직의 과정을 경험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인 일반적인 과정을 인터뷰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00센터에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연구참여자의 취업관련에 대한 성공수기, 중고령자에 관련된 정책 지침 관련 자료, 근무현장에서 수시로 대면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심층상담 사례집,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를 얻어 기본적인 스크랩을 통한 자료를 수시로 보완 할 수 있었다.

적용성(transferability)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과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지향을 실시하였다. 적용성은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장소,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상황 이외에서도 이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신뢰성(dependability)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고령자의 취업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밀한 표집과정을 마쳤다. 이들의 인터뷰 원자료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녹음파일, 녹취록, 소주제별 1차 코딩, 의미요약과 구성요소의 추출, 구성요소의 구조화 등의 순서대로 문서화하였다.

확증성(confirmability)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체계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 9명의 2~4차 인터뷰 녹취파일, 의미단위별 요약파일, 기록물의 보관은 연구노트,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연구동의서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작성 파일모음집 1부,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사전예비조사 파일1부, 기본적으로 항상 메모하기 위한 핸드노트 1권, 정부 취업정책과 고용노동부 관련 취업지원 정책자료, 관련기사 스크랩 등 자료모음집 등이 보관되어 있다.

## 4. 중고령 실직자 재취업 과정 참여자 현상

### 4.1 현실적 한계를 인정함

중고령자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수입을 얻게 된다는 경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 통로가 되며 건강의 유지, 삶의 보람 등 비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고령자의 노동력의 특성은 '스스로 작아진 자신을 인정함'이다. 과거 경력개발에서 실직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재취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의 지위에 놓여있는 대상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대임금은 높으나 실질 임금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여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며 취업할 수밖에 없다.

#### (가) 스스로 작아진 자신을 인정함

구직활동 과정에서 중고령자들은 임금체계의 현실을 겪게 되면 취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여 열악한 취업현장에서 자신들의 과거 경력이나 현재의 취업능력 과 상관없이 취업가능 직종의 한계성 때문에 전문성과 능력에 무관한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한다. 그러면서도 취업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에 현실을 인정하고 만족한다.

#### (나) 근로조건에 대한 아쉬움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고령자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려는 인력수요의 증가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며 취업의 결과가 비정규직 등의 낮은 직업지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4.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지

구직활동의 힘든 경험을 하면서 부딪치는 자존심의 상처, 그럴수록 더 취업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 희망직종 진입을 위한 역량부족을 느끼면서 경력단절 실직자의 세상 엿보기에서 느끼는 두려움 등 중고령자의 취업 과정 경험에서 느끼는 현실에 관한 서술이다.

#### (가) 실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취업을 위한 노력, 경력개발 노력, 재취업 후의 경력개발과정 등을 보면 자신의 경력목표와 인적자본은 오랜

실직기간과 잦은 경력변화를 거치면서 과거의 모든 조건들은 가치하락으로 결론짓고 재취업의 욕구가 강한 연구참여자들은 학력, 전공과 상관없는 새로운 분야로 진입한다. 급한대로 교육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아보기도 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력서를 10번 정도 냈었고 실제 면접은 4번 정도 보았어요.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2개월 전부터 일자리를 열심히 찾기 시작해요” <참여자 3>

“그렇게 많이는 안하구요 한 4~5번 정도. 짧은 1년 기간 동안에 상담쪽에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력서는 그렇게 많이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서류는 다 합격했어요. 면접까지 갔다가 면접에서 나이차이가 있어서 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여자 4>

(나) 희망직종 진입을 위해 필요한 역량 쌓기  
중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노동시장에서 특정한 직종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교육, 훈련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하여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참여하였고 직업훈련도 받아보았고, 진로상담사, 혼자서 구직활동 등으로 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고용센터쪽을 열심히 검색하면서. 작년에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참여자 2>

### 4.3 재취업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 발견

아침에 일어나 어딘가에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처럼 일을 통해 얻은 것은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가) 재취업과정 경험에서 나를 알게 됨  
중·고령기를 맞고 있는 시기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기회가 되었다. 취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찾게 되었고 아직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취업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 새로운 목표에 장애물을 뛰어 넘음

중고령자들의 재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접해보는 것이 신나는 일이고 때로는 도전으로 느껴지면서 진정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모순된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

“나이가 걸렸어요, 나이, 또 능력, 본인의 능력이 걸림돌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쉬기도 했어요” <참여자 1>

### 4.4 내 청춘 후반기의 기대감

내 인생 후반기 즉, 노후생활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제력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고령자들로서 독립적이고 당당한 제2의 인생을 보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다.

(가) 생활안정을 통한 아름다운 삶 유지

늙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누구나 자신의 노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상상을 해 보지만 실제로 자신의 노후가 어떠한지, 노후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직장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참여자 1>

(나) 사회적 존재감과 삶의 가치를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실직을 경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취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떨리는 마음과 불안감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엿보면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다양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존재감과 인생후반기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 4.5 재취업 성공 요인

중고령의 나이에도 유급의 생산 활동, 즉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은퇴 후에 공백 기간을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 만족도,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모두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 가족의 긍정적 지지에 힘을 얻음  
가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취업욕구를 솟구치게 하는 중요한 뒷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재취업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며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큰 반향을 일으킨다.

(나) 주어진 환경 안에서 끊임없는 노력  
중고령자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된 요소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새로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의식'을 부여하기도 한다.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미래를 회상하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직업훈련은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

(다)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직업훈련(자격증)  
연구참여자들의 재취업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직을 준비했던 것이 재취업성공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은 전직을 위하여 준비기간을 가졌고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직업훈련과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재취업을 위하여 많은 기간을 고민했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학습으로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준비된 구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 5. 결론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실직자 재취업 과정의 의미를 기존의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 검토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재취업과정의 본질적 측면을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연구한 결과를 요약과 함께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함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함의 경험은 중고령자의 현실적 직업탐색에서 오는 괴리감의 혼란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된 느낌을 몸으로 겪으면서 실질임금과 의중임금의 노동력 특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지는 취업활동에서 나타난 중고령자의 경험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또는 "실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이력서를 수십 번씩 제출해보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또다시 용기를 내어보는 힘든 여정을 반복하기도 했다.

절박한 경제적 빈곤은 실직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이

나 기타 임시적인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던 수입원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서 비축해 놓았던 자금도 줄어들게 되며 금전적인 제약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에서 위축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 발견은 아침에 일어나 어딘가에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처럼 일을 통해 얻은 것은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은 곧 자신의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내 청춘 후반기의 기대감은 늙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각도에서 노후를 바라본다면 은퇴를 새로운 삶의 전환과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노후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편안한 여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 청춘 후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취업성공 요인은 경제활동이란 심리적으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리듬에 의한 잠념도 감소되고, 고정수입의 보장, 일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취업이란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도 가족의 긍정적 지지에 힘을 얻었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그 노력의 과정은 힘들었어도 재취업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으며 재취업의 성공요인으로 사회생활, 즉 취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실직자 재취업과정의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본질적 맥락에서 의미를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중고령자의 재취업경험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즉,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한 직업훈련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감 회복과 연구참여자의 취업의 의지와 욕구가 더해져서 새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해보는 기회였다.

## 6. References

- [1] Becker, H. S.(2003). Writing for social scientists. li sung young, li choll uo,(2006). social scientist's writing. ilsinsa.
- [2] Crotty,M.Shin gyeong rim, Gong Beong Hye joint translition.(2001). 『phenomenology methodology』 hyunmoonsa.(2001).
- [3] Doeringer, P.B & Piore, M. J. 1971. "Internatio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Books.
- [4] Giorgi(2003). "Giorgi. "phenomenology methodology".2003 winter gualitative methodology internatuonal science council's source book. Seoul: Korea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5] Giorgi(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y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1.
- [6] Giorgi. A.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7]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8]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Sage.
- [9] Merleau-ponty,M(1945)phenomenologie
- [10] dela perception. Paris: Editions
- [11] Gallimard. Ryu Ui Geun(2002). Pheonomenology of perception.Seoul: literatureand history of mentaliey
- [12]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 by C. Smith. London.
- [13] Michael Crotty(2001).Shin gyeong rim .Gong Beong Hye joint translition. 『phenomenology methodology』 hyunmoonsa..
- [14] OECD, Reforms for Ageing Society. 2000

## 저자 소개

### 나혜숙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백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전 고용노동부 공무원

현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심의위원, 현 일학습병행제 심의위원  
관심분야 : 청년취업 및 고령자

재취업을 통한 사회복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번지 돈암이수브라운스톤@115동904호